

# 시간과 숨결 품은 옛집에 깃든 우리 이야기

## 길모퉁이 오래된 집

최예선 지음

오래된 집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오래된 것들이 지닌 힘이다. 거주했던 이의 역사와 숨결, 시나고난한 역사가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그렇다. 오래된 집들은 나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낯선 이가 살아온 집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직 잡지기자였던 최예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생긴 집에 서면 이 집에 누가 살까, 이 집을 누가 지었을까가 궁금해진다. 이유 없이 지어지는 집은 없고 집 안의 모든 요소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은 사람을 닮는다."

전국 31곳의 근대건축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 '길모퉁이 오래된 집'은 제목처럼 여운을 담고 있다. 저자 최예선은 건축가 남편과 답사한 기록 '정춘남녀, 백 년 전 세상을 탐하다'와 예술가들의 집을 연결해 서울을 재구성한 '오후 세 시, 그곳으로부터' 등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책은 '근대건축에 깃든 우리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오래된 집이 모티브다. 책은 모두 4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시간을 품은 서울 옛집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인 서울 옛집 대명사로써 최순우 가옥을 들 수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 아니라 해곡 최순우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한국전쟁 때 수많은 보물들을 숨기고 피난을 갔던 집이나, 부산으로 옮겨진 유물이



운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가 보관돼 있던 광양 망덕포구 인근 정병욱 가옥.

(센터 제공)

화재로 사라지는 아픔을 목격했던 스토리는 유명하다. 경사지에 지어진 높은 대문, 정갈한 마당, 휘영청 뽀얀 소나무 등에서 "화려하게 꾸민 데 없이 단정함과 고결함"이 느껴진다.

이밖에 소설가 박종화의 평창동 고택, 애국지사 김구 선생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고장을 비롯해 익선동의 한옥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만난다.

2부는 시대의 회로애락, 다시 말해 당대 역사를 담은 집이 중심이다. 평생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가렛과 마리안느가 머물던 집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두 개의 창이 있는 똑같은 모양의 방. 수술을 받은 마리안느는 의자와 책상을 놓았고, 마가렛은 앉은뱅이 좌탁을 사용한 것만 다를 뿐 똑같이 소박하고 단정한 방이었다. 마가렛의 방 창문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다."

아울러 사위 김지하가 투옥되자 딸과 손주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이사까지 했던 작가 박경리의 집, 화가의 소탈한 품성을 담은 용인 장욱진 가옥의 이야기도 펼쳐진다.

3부에서는 치유의 공간으로 소환되는, 유산으로서의 옛집을 만난다. 특히 광양 정병욱 가옥은 운동주 시인의 유고가 보관됐던 곳이다. 섬진강이 지나는 망덕포구에 자리한 관계로 강의 정취와 아울러 당시 시대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그 외에 역사의 그늘이 드리워진 부산 정란각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 4부는 오래도록 마음이 머무는 집 이야기다. 피난민들이 무덤 위에 지은 판잣집으로 시작했던 부산 아미동과 감천동 문화마을, 철도원들의 애환이 깃든 대전 소재 철도관사촌 이야기도 만난다. <센터·1만68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나는 내가 살고 좋고 이상하고=시인 백은선의 첫 산문집이다. 양가감정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누구보다도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밝힌다. 삶의 순간들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는 문장들은 부끄러움과 즐거움, 후회와 안도 사이를 오가며 산문을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그 이면엔 폭력의 경험이 새긴 슬픔과 분노가 자리잡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나'를 찾아간다. <문학동네·1만3500원>



▲우리 집에 식물을 들여도 괜찮을까요?=식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 이 책을 참고해보자.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놓지 집 안 인테리어적인 면까지 짚어준다. 또 박쥐라과 에어플랜트 등 그린인테리어에 중심이 될 만한 식물 64종을 엄선해 소개하고, 키우는 데 적당한 환경과 관리법을 유형별로 알려준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가는 감정을 서글프게 포착한다. <민음사·1만원>

▲씨칭 포 캔디맨=송기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인간을 바라보는 애처롭고 안쓰러운 시선을 자조와 유머가 뒤섞인 광대의 언어로 표현한다. 시인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맨'은 차라리 녹을지 언정 쌓여 가고 싶지 않은 이 시대의 캐리커처라고 전하며, 슈가로 살아가고 싶었으나 이미 캔디로 결정된 삶이 당도를 잃어

▲우리 아이 첫 음악 수업=유튜브 채널 '정쌤준쌤 교육이슈'를 운영중인 초등교사 정지훈, 이준권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자녀의 음악교육법을 소개한다. 총 5부로 구성됐으며, 아이의 음악성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아이의 숨겨진 음악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 아이에게 꼭 맞는 악기와 악기 선생님을 만나는 방법, 악기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담았다. <지노·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알면 들리는 클래식=역사·예술·과학·문학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이 뭐래?' 시리즈 1권이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국민주의 등 사랑받는 클래식 명곡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시대별로 조명하며, 모차르트, 슈베르트, 스타우트,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등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천재성으로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이들의 예술혼과 명곡의 창조 과정을 담았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화가인 저자는 파충류, 악어, 뱀, 새, 고래, 코뿔소, 코끼리, 포유류, 영장류 등 13가지의 진화 과정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며,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질학과 분류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노래돼지·1만6000원>

▲고래가 걸었다고?=5억 4000만 년 전 딱딱한 껍데기가 갑자기 진화한 순간을 시작으로, 최초의 어류에서부터 지금의 인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의 진화를 다룬 과학책이다. 스코틀랜드 작가이자

▲아니야!=이정록 시인의 그림책. 알밤 같이 팽글팽글 아무진 아이가 책장을 열고 등장해 선언한다.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많은 것을 부정하는 미운 네 살, '아니야 기(期)'를 지나는 꼬마의 열두 띠 동물에 대한 기발한 발상이 담겼다. "쥐구멍에 별 들 날 있다고? 아니야. 쥐구멍에 해가 들면 쥐네 집 무너졌단 얘기가." 아이만의 해석이 흥미롭다. <문학동네·1만2800원>

# 나도 책 한번 내 볼까? ... '난생 처음 내 책' 출간을 위한 모험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이 경 지음

요즘 서점에 갈 때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정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신간 코너에서 만나는 책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해마다 회사로 쏟아지는 신춘문에 투고작들은 어떤가. 소설, 동화, 시 등 문학을 통해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예비 작가들의 열정을 본다.



최근 글쓰기는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글쓰기 강좌도 많아지고, 독립출판물이 인기를 모으면서 책을 내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책'을 출간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일

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퇴직을 맞아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모름지기 자신의 원고나 출판사에서 '인정'을 받는 절차를 통해 출간되기를 바랄 터다.

지금 서점 매대에 놓인 저 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출간될 걸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책이 나왔다. 수차례 투고하고 퇴짜를 맞는 과정을 거쳐 책을 펴낸 저자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긴 책이다.

이 경 작가가 펴낸 '난생 처음 내 책-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는 별다른 이력이나 저자가 지금까지 3권의 책을 펴내기까지 겪은, '출간을 위한 모험'을 펼쳐놓은 글이다. '난생처음' 시리즈를 내고 있는 티라미수 출판사는 기타, 킥복싱, 서핑에 이어 '난생 처음 내 책'을 펴냈다.

음악 웹진 '드림' 필진으로 참여하며 글을 써 온 저자의 투고 인생은 지난했다. 1년 동안 200여 출판사에 음악 에세이를 투고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불발되자 저자는 에세이를 투고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메타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 원고는 66곳의 출판사를 거쳐 '작가님? 작가님!'이라는 책으로 묶여나

왔고, 두번째 책 '힘 빼고 스윙스윙 탈탈라'는 34곳에 투고한 후 책의 모습을 갖췄다. '난생 처음 내 책'은 스무번의 투고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는 "내세울만한 이력도 없는 무명작가로서 오로지 글만으로 평가받아 세권의 책을 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렇게, 첫 책을 만났습니다' 등 4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작가 지망생 한 사람의 데뷔 과정과 그 전후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담겼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책을 한 권 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귀가 솔깃할만하다. 책 제목에도 나와있듯 '편집자'와 함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자비 출판이나, 독립출판물 제작과는 분명 다른 성취감을 준다. 책은 편집자와 수십통의 메일을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책을 만드는 즐거움과 애뜻함이 담겨 있고 투고하는 법, 보도자료 쓰는 법, 자기 책을 홍보하는 법 등도 들려준다.

당신이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원고 문치가 '책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꿈꾸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한 동료애를 느끼며 읽어볼만한 책이다. <티라미수·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